

갈등과 편견에서 공존과 협력의 이슬람으로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박물관장

이슬람과 서구 : 갈등과 화합의 정반합

중동은 알 카에다에 이어 IS(이슬람국가)라는 급진 테러조직을 궤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상자가 급증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또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피해자들의 극도의 분노와 복수의 응어리들이 오늘날 중동에서 극단적 저항조직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배경이다. 한편 이슬람을 앞세우는 테러조직들의 반인륜적 야만행위로 인해 어느덧 서구에는 “이슬람=테러”라는 등식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두 세계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적 거리를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슬람과 서구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화해라는 두 개의 축이 정반합을 거듭해 왔다.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 이스탄불에는 인류 건축사의 압권인 6세기경에 지어진 성 소피아 성당이 있다. 내부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과 기독교 모자이크 성화와 함께 이슬람교의 종교적 장식들이 나란히 놓여있다. 두 종교, 두 문명, 두 대륙이 한 점에서 만나 조화와 공존의 미를 마음껏 뽐내고 있다.

역시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유대인 공동체 마을인 갈라타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한 달 동안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는다. 내가 만나본 유대인 상점 주인들 중에는 이슬람주민들과 똑같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유대인들은 금식의무가 없는데 왜 하필 힘든 고통을 자초하십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 고객이 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힘들게 금식하면서, 배고픈 자의 고통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배불리 먹고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내 고객에 대한 예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슬람은 갈등과 전쟁보다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하

는 지혜를 통해 천년(651~1683년)의 세계제국을 이루었고, 중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예술적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더욱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있던 유럽을 일깨워 르네상스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실크로드라는 문명의 젖줄을 통해 첨단 학문과 기술을 동서로 전파해주면서 티무르 시대 중앙아시아의 번영, 인도 무굴제국 시기의 타지마할 축조, 원-명 시기의 중국의 과학발전에 이어, 세종 시기에는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그럼 중세 서양의 퇴보와 이슬람 세계의 번성을 갈랐던 인식론의 차이는?

그것은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학문전통을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였다. 6백년 이상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적인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서양 기독교 세계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사상들은 기독교 교의라는 프리즘을 거치면서 거룩한 천국과 지상의 비천한 삶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견고한 독단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인간이란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활동으로 도출된 경험을 통해서만으로는 신의 영역인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절대한계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종교적 해석에 이성과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허용했다. 나아가 “과학연구는 종교적 의무”라는 놀라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중세 이슬람 세계는 실과 비늘의 관계처럼 학문연구가 종교적 신앙과 결합됨으로써 무한의 진보를 거듭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용어와 일상 언어 중에도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화학(chemistry), 연금술(alchemy), 천문학(astronomy), 점성학(astrology), 대수학(algebra), 그리고 커피(coffee), 설탕(sugar), 레몬(lemon), 음악(music), 파자마(pajama) 등도 아랍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슬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란 인물에 의해 완성된 이슬람은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알라'는 하느님의 아랍어 표기다. 이슬람교는 예수를 받아들이되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와는 달리 예수의 신격화를 부정하였다. 이슬람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성경상의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적 임무를 띤 훌륭한 인간 예언자로 인정하고 추앙하였다. 무함마드는 예수 이후에 신에 의해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로 보았다. 무함마드의 계시서인 코란은 모세오경, 시편, 복음서 등 앞선 경전들의 내용을 총합한 완성된 경전으로 간주되었다. 중재자 없는 신과 인간의 직접교통, 계급과 인종, 피부색을 초월한 만민의 평등과 구체적 형제애 의식 등이 이슬람의 특징이다.

역사 속에서 되짚어보는 중동의 한류 : 중동과 신라

지금 중동에서는 한류열풍이 식을 줄을 모른다. 1970-80년대 100만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신기루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지금 중동의 고속도로, 상징적 랜드마크 빌딩, 발전소, 대학, 교량을 만들었고, 아랍 현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한국산 가전제품, IT, 자동차를 사용하며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며 살아간다. 거의 모든 중동국가에서 "Made in Korea"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24시간 한국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독한 짝사랑이다.

이러한 한국사랑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우리와 중동-아랍 간에는 적어도 1,500년의 오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신라로 망명해 와서 신라공주와 결혼을 하고 신라와 페르시아 제국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인 쿠푸나메가 최근 발견되었다. 더욱이 18명의 아랍 학자들이 기술한 20여 권의 아랍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에 신

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아랍 상인들은 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로를 통해 신라에 빈번하게 내왕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귀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 살았다. 척박한 사막 오아시스에서 물과 초원을 그리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먹을거리, 광물과 금이 풍부한 신라야말로 최고의 거주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신라를 사라져버린 낙원 아틀란티스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무리 불치병 환자라도 신라에 오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나아버린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의 쾌적한 삶의 조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한국을 향한 동경은 신라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고려 초기에는 대식이라 불리는 아랍상인들이 수백 명씩 사절단을 이루며 개성을 드나들었고, 고려 말에는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고 모스크까지 짓고 살았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우수한 이슬람 과학기술과 유용한 첨단 정보를 우리 사회에 전달해 주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는 음력의 정비에는 물론 각종 과학기기의 발명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슬람 대표들이 세종대왕의 초청으로 궁중에서 코란까지 낭송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이슬람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인식의 전환

중동-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서 코리아 브랜드를 찾고,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가야 하는가? 이제는 서구 중심의 고정관념과 편견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슬람을 종교적 문제로만 보면 '선과 악'의 구도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 같고 다름이라는 문화의 잣대로 보고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면 어떨까. 지구촌 미래를 함께 짊어질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따뜻한 이웃으로 이슬람 세계를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 15억 인구, 57개 국가를 가진 세계 최대의 단일 문화권을 적대적 이해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21세기 글로벌 전략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필자 소개

-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 한국 최초로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으로 유학,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로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 ▷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제다 이슬람교육센터 아랍어 연수, 이슬람권의 유엔인 OIC(세계이슬람회의기구)의 이슬람역사문화 연구소(IRCICA) 연구원,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 중세사학과 조교수, 미국 Univ. of Washington 중근동학과 교환교수 역임
- ▷ 주요 저서 :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 세계〉 〈이슬람과 한국문화〉 외 다수

